

■ 提 言 ■

그 후의 학교경찰
(배움터 지킴이)

— 全 昌 植 (本誌 논설위원) —



前者에 본 警友新聞을 통해서 충남 천안대학에서 기획 착수한 학교경찰의 면모를 부분적으로나마 언급한 바 있어 뜻있는 계층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함께한 희망을 느낀바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후의 귀추에 대해서 예의 주시의 틈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해당자는 물론 일반 사회계층에서까지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의 여부에 대해서 이목을 곤두세웠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서 그 시험적 성과의 결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는 주변에서의 기대한 것에 비해서 만족할 만하다는 의욕을 채워주는지는 못했다는 게 종합적인 사후여론이다.

실상 스쿨 폴리스가 자체적인 방법의도와 객관적인 학생보호의 희망과 기대감의 충격을 위해서 지난해 시범도입했던 상황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에 71곳에서 100면시 활동한 것으로 기록된다. 비록 열악한 초기의 어설픈 과도적 시행치고는 비교적 좀 더 기대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대감이 올 해 들어서 좀 더 실질화되면서 3월부터 전국 100개교(중학교 73곳, 고등학교 25곳, 초등학교 2곳)에 학교당 두 명씩 모두 200명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스쿨폴리스의 제도적 시행에 필수요건인 인적충원을 위해서 16개 시·도 교육청 별로 지난 3월에 선발한 요원은 퇴직경찰(103명), 퇴직교원(63명), 청소년 전문가(27명), 피해 학생부모(7명)들이었으며, 이 선발 경쟁률은 2대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퇴직자들의 직장 배분과 더불어 몸에서 지닌 전직에 대한 재활동의식이 다시없는 호기를 유도케한 것으로 당연성을 갖는다.

적지않은 경쟁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은 합격자들은 지난 3월 30일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교육인적자원 연수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학교 폭력 추방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자체교육을 위한 연수로 돌입하는 순서를 밟기 시작했다. 내부적인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매일(월~금)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치된 담당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틀이 짜여져 있다.

내년 2월까지 학생들의 등·하교지도는 물론 점심시간·자율학습시간 등 정칙교사들의 손길이나 이목이 미치지않는 취약시간에 교내를 순회하며 학생들의 불신한 행동과 불량배들의 학교잡입들을 예리한 전직안목으로 살피며 학생들 서로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목격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담·현장지도·학교장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적절한 제지·훈계 등으로 지도하는 순서를 밟도록 되어있는게 현황으로 제정된 규정이다.

우선은 초기 단계의 상황에서 광목할만한 성과는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게 솔직한 현주소라는 평이다. 그러나 스쿨폴리스를 맞는 학교당교이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일반사회에서의 반대여론이 없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의 전망은 결코 어둡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의 정평이다.

“1260여명의 학생을 63명의 교사가 하루종일 돌보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어느 교장선생님은 [스쿨폴리스의 학교폭력 예방능력을 크게 기대한 대면서 확대투입을 희망했다. 그리고 이같은 확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는다.

아울러 인력수급기관으로 재향 경우회의 타당성을 재고해 보는 것도 과욕은 아닐 것이라는게 120여 만명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쪽이기도 하다.

名士칼럼

김진홍
(두레공동체 운동 대표)

요즘 들어 뉴스를 보노라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장면’이 있다. 시위대에게 죽창으로, 쇠파이프로 얻어 맞아 피투성이가 된 경찰관들의 모습을 볼 때다.

지금 세계의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매 맞고 있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더욱이나 그렇게 매 맞고도 말도 못한 채 쉬쉬하는 나라가 또 있겠는가?

지난 해 만도 1000여 명의 경찰이 시위대를 막다가 중경상을 입었다.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심지어는 죽창에 찔려 실명하게 된 경우까지 있다.

지금도 경찰병원에는 시위현장에서 부상당한 20대 전경들이 술하게 입원하고 있

警察의 士氣를 높여 주자

- 경찰이 매맞는 나라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 -

는 중이다. 그들 중 고군(20세)은 지난 번 경찰차 3대가 불탄 여의도 농민시위에 나갔다가 시위대의 한 가운데에 갇혀 쇠파이프로 허리를 맞고는 몸을 짓밟힌 뒤로 허리디스크가 생겨 누워 지내는 경우이다.

문제는 이렇게 맞고도 말 못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듣기로는 지난해 말경 과적 시위 도중 한 농민이 죽자 그 책임을 물어 임기 1년이 남은 경찰청장이 강제사퇴 당한 적이 있다. 그 후로부터 경찰 안에 ‘쉬쉬병’이 생겼다는 소문이다.

그 뒤로 시위 현장에서 부하 대원들이 쇠파이프로 맞고 있는 동안 경찰 간부들은 뒤에서 “차라리 그냥 맞아라. 맞아!” 하고 고함친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시위대에게 경찰이 짓밟히는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 셈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현실은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권력의 최일선인 경찰이 매를 맞고 사는 나라는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기왕 경찰의 氣살리기에 나섰으니, 경찰과 관련된 덕담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한다.

지난 해 연말, 경찰 업무를 감당하느라 피로에 지친 경찰관들이 한 끼 식사라도 하라는 뜻에서 파출소에 약간의 성금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면 봉투가 그냥 되돌아 왔다. 웬일인가 하여 알아보았더니 옛날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은 것이 엄격하게 금지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럴 수 있느냐 무슨 사정을 부탁하는 청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관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에서 보낸 작은 성금인데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파출소를 일부러 찾아 가서 설명을 하였으나 역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는 후로 나는 “요즘 경찰이 옛날과는 달리 많이 깨끗해지고 수준이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 일에 비하여 경찰을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이듯이 경찰도 시민들과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쳐주해 주

는 만큼 발전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법 집행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하여 인정과 처우가 너무나 보잘 것 없음을 느끼게 된다.

미국에 갔을 때에 내가 방문한 한 가정의 사위가 미국의 경찰관인데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는 한국의 경찰관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의 경찰관과 한국의 경찰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경찰이란 것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한국 경찰은 강력법 검거 실적으로는 세계 상위권이고, 다른 무엇보다 한국은 신기하리 만큼 마약사범 단속에서는 세계경찰들 중에 모범적인 위치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각종 집회 및 시위의 관리, 거리의 교통질서 확립, 범죄의 예방 및 소탕 등이 모든 것이 안전한 치안의 확립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만 할 일이다.

이제 그저 묵묵히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그들이 격무에 상응한 인정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과 정성을 모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줄 때인 것이다.

老 後의 취미생활

— 이 태 기 (경우 공동회회)



이미 장수 시대로 접어들어 있다. 요즘 세상은 나이 60에 回甲宴을 하면 흥을 잡힐 정도로 70세 교회 잔치하는 것을 마치 옛날 회갑잔치 정도쯤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리켜서 노인친국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서 주마산(走馬看山)적이나마 체험해 보니 허를 내 두를 정도 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수준은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에 따라서는 선심행정을 펴노라 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도시고 농촌이고 간에 시·군·구마다 운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나 풍부한 음식과 고도로 발달된 의료기술로

하는 복지관은 바로 노인들의 취미 활동요람차가 되었다.

그 곳에는 컴퓨터, 서예, 그림, 외국어, 바둑, 스포츠 댄스, 운동, 노래 등등 갖가지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자기 적성에 따라 선택해 익히고 즐기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취미활동은 이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필수 아미노산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떤 취미 활동이 적합할까? 혹은 어떤 취미가 자기에게 잘 맞을까를 놓고 심사숙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직장에 나가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간다. 운동이 아니라도 그냥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도 많다. 그런 대의 활동을 제외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에서 하는 취미로는 단연 컴퓨터를 만지는 일이라 하겠다.

나는 컴퓨터를 우리 6.70세대에서는 그래도 선두주자(先頭走者)란 칭찬을 듣고 있다. 내가 썩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하거나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요즘 사람들은 유치원생에서부터 50대 장년세대까지가 누가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 있겠는가? 컴퓨터를 안다는 것은 당연지사라 여기고 있고 모르는 이는 무지한 사람 취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야 명함도 못 낼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도 6.70세대에 와서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겠다. 실버세대에게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 캠핑을 탈출 했다고 하면 그만큼 앞선 세대로 인정을 받고 반면에 아직 캠핑이라고 하다면 한참 뒤떨어진 세대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다.

- 중 략 -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편리한 줄을 안 배운 사

람들은 모른다. 인터넷 뱅킹으로 안방에서 은행업무도 볼 수 있고 주식거래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이 뿐인가?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도 안방에 앉아서 해결하고 우체국 업무까지도 앉은 자리에서 해결한다. 전자우편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배달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만해도 인터넷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매일 얼굴 없는 사이버 세계에서 무려 100여명의 네티즌들과 대화도 하고 아름다운 글과 즐거운 음악, 감동적인 사진을 주고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 자기수양, 자기개발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근면해지는 것이 집안에 혼자만 되어 있어도 무료하거나 심심할 여지가 없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만이 아니라 실제 만나 얼굴을 익혀 친분을 두텁게 지내는 회원도 늘어만 가고 있다. 그중에는 매일 보내주는 이-메일이 고맙다며 마치 큰 선행이나 한 사람처럼 환대해 주는 회원이 있으니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6.70세대 중 아직도 컴퓨터를 익히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컴퓨터를 배워 취미생활을 해 볼 것을 권고하고 싶다.

SYS (주)씨스팜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 리프리놀은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분
관절을 사용이 많으신 분
관절이 불편하여 기능 개선 및 보호를 원하는 분
관절 건강이 염려 되시는분

● 리프리놀은 안전합니다.

다른 약물이나 식품과 같이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외 인체시험에서 기능성확인!

문의 : 02) 796-0065



www.syseshop.co.kr